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4.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b>차</b>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2014. 5

**한국YWCA**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이달의 생각**  
YWCA회원, 생명 위기 시대의 파수꾼

**특집**  
생명 위기 시대

**이달의 현장**  
북부·동부지역 회원대회



신록이 푸르러가는 요즘의 산과 들은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300여 명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에 잃어버린 아픔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재벌과 불법에 결탁한 정부와 관료들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모든 물건에는 안전을 위한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재벌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2, 제3의 세월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침묵과 방관의 자세를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을 빛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한 송이 꽃이 될 것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차

- 04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 05 이달의 생각 YWCA회원, 생명 위기 시대의 파수꾼 | 이명혜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5월의 한국YWCA | 유성희

특집 생명 위기 시대

- 08 기획 ① 생명존중과 공감이 사라진 현장 | 최만자
- 10 기획 ②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 이영재
- 12 기획 ③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한국YWCA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 강교자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녀와서 | 김은숙 · 전하예

칼럼

- 16 탈핵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김익중
- 18 여성 현대 기독교 여성,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 | 백소영
- 20 인권 자유권규약에서 '자유'의 의미 | 김정린
- 22 청년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 여수Y 대학Y

- 24 인터뷰 인도YWCA 라일라 파사 사무총장 | 편집실
  - 26 이달의 현장 ① 북부·동부지역 회원대회 | 편집실
  - 31 이달의 현장 ② 2014 경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 박동순
  - 32 이달의 현장 ③ 부천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 | 송록희
  - 34 이달의 현장 ④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하며 | 김은희
  - 35 이달의 묵상 보이지 않는 세계 | 이천진
  - 38 지역운동이야기 현장을 통해 보는 Y아카데미 지역 교육 | 최수신나
  - 40 연합회 소식
  - 42 회원YWCA 소식
- 「여·세」 잡지 창간 광고



표지이야기

5월 10일 안산시민촛불 현장을 찾아가습니다. 안산의 슬픔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했습니다. "잊지 않을게" 라는 문구가 아련히 전해져 옵니다. YWCA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기억' 하겠습니다.

제50권 제4호 통권 510호 2014년 5월 23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인쇄 중무기획인쇄(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버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2일째,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비통과 애끓는 가슴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위로를 전할 수 없지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께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엄청난 사고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생명경시 현상과 안전불감증, 국가의 위기 대처와 관리 능력 부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방조하는 당국, 각종 부패와 부조리 등을 목격했습니다.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인해 더 큰 참사가 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여야만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이번 세월호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지역의 YWCA회원들은 조속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은 밝혀져야 합니다. 승객을 버리고 나온 선장이나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해경과 관계기관의 원칙 없는 대응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올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온갖 부패와 무책임의 사슬을 밝혀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기관 등도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와 재난 대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에 아픔을 통감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눈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고, 돈이 최고라는 잘못된 배금주의가 없어지며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

한국YWCA연합회, 전국 52개 지역 YWCA 회원 일동

# YWCA회원, 생명 위기 시대의 파수꾼

글 | 이명혜 (연합회 부회장)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참사,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마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눈망을 앞에 많은 어른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눈물의 사죄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대재앙(大災殃)이다. 세월호는 여객선으로 수명을 다한 배를 수입해 다시 이용기한을 연장한 것이었다. 노후한 선박을 돈벌이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개조하고, 적정 화물 적재량의 몇 배가 넘는 짐들을 실었다. 화물 고정장치와 구명정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서라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 더딘 구조작업에서 나타나듯 재난 구조시스템의 무능과 부재는 우리사회의 바탕이 되어야 할 ‘신뢰’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의 비겁함이 있는 곳에 의로운 사람도 있다. 승객안내 담당 고(故)박지영 씨는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며 구조 활동을 했다고 한다. “선원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다 나가고 나면 따라 나가겠다.”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었다.

YWCA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대마다 필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4월 20일로 YWCA 창립 92년을 맞이한 YWCA는 여성을 살리는 운동, 청소년을 살리는 운동, 우리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YWCA운동에 참여할 사람을 찾는 회원중모은동워크숍과 각 회원YWCA의 발대식 그리고 5월에는 지역별 회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의 전국대회를 대체한 지역별 회원대회에서는 2014~2015년 YWCA 중점과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의제를 회원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갖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나서서 탐욕과 세속화된 사회에서 생명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짐하고 행동하는 출발장이 될 것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 안에는 ‘제도화된 무책임성’이 만연한다고 고발한다. 일상화된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험사회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월호의 감독관청과 안전 진단기관 무책임과 같이,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며 가동하고, 부품 공급업체의 뇌물을 받고 성능 시험서 위조를 눈감아준 원전 책임자들의 행태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생명위기의 징후가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지난 전국회장단 연수에서 주선에 명예연합위원은 극단적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후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YWCA가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당부했다. 거꾸로 가는 세상에 우리들의 회개와 사랑의 운동이 절실하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또 다시 현장으로, YWCA 회원들이 나설 때이다. 

# 5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5월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로 지켜지는 5월을, 우리는 참담함과 비통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한 달이 지난 오늘도 팽목항에는 자녀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매번 큰 사고 때마다 대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전 국민이 이렇게 애통해 하는 것은,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원칙이 지켜졌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아픈 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탄식과 분노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세월호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책임져야 할 주체들을 찾고 책임을 묻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성금보다, 보상보다,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유족들의 외침이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5월의 한국YWCA는 월례기도회를 시작으로, 4년에 한번 열리는 지역별 회원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안산과 목포YWCA가 현장에서 유족들을 지원하고, 상처 받은 지역 공동체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YWCA는 52개 회원YWCA를 대신하여 생존학생들과 유가족의 치유, 상처 입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할 것입니다.

정부와 시장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참사에서,

또 한편에서 급격히 성장해 온 시민사회 영역도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나아가 감시와 견제, 제안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존재합니다.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인정된 '날림'의 성과주의가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자성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 못지않게 공공성, 책임성, 역사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YWCA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존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독립된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깨어있는 신앙인의 실천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YWCA는 52개 회원YWCA의 회원대표들이 모인 회원대회에서 '탈핵사회'와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위한 회원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세월호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수명이 다 되고도 6년이나 재가동을 하고 있는 고리원전을 멈추기 위해 함께 외치고 요구하는 생명의 날, 불의 날 캠페인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서울Y, 충주Y, 순천YWCA가 명동 캠페인을 주관합니다. 원전의 불 하나만이라도 함께 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로서, 사회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우리 여성들이 생명의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생명 위기 시대

- 기획 ① \_ 생명존중과 공감이 사라진 현장 | 최만자
- 기획 ② \_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 이영재
- 기획 ③ \_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한국YWCA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 강교자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녀와서 | 김은숙 · 전하예



# 편법, 위법이 판친 세상에서 생명존중과 공감의 사라진 현장

글 | 최만자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신학자)

“사랑하는 내 아들, 호도했던 내 아들이 어찌그리 못오고 있는 게야. 어서 빨리 돌아와 다오. 어서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신발도, 옷도 입어 봐야지. 아들. 엄마 소원이야 아들 얼굴 한번 만져나 보세. 어서 돌아와 줘 오늘은 약속하는 거지. 돌아온다고 기다리마. 아들, 사랑해.” (세월호 침몰 29일째 실종자 가족의 편지, 경향신문 2014년 5월 17일)

‘이제는 그 시신이라도 만져 볼 수 있었으면...’ 이것이 지금 실종자 가족들의 애틋한 마음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뒤범벅돼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에게 스스로 탈출할 기회마저 막아버리고 배에서 빠져나간 부분이다. 승객들을 버려둔 채 팬티바람으로 허겁지겁 구조선을 타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은 이 사건의 온갖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막힌 의문을 주고 있다. 또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데서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당시 선체진입을 하지도 않고 이상한 구조활동으로 배안에 있는 승객을 수장시킨 것이다.

해경이 현장 도착 한 때부터 그후 47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구조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 ‘누가 소리 한번 크게 질러 주었더라도’ 라는 안타까움이 우리 몸을 오늘도 떨게 하는데 해경은 참사와 관련해 총체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직도 여러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과 책임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는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고 피해 가족들은 고통 속에 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생활의 안정감을 갖지 못할 만큼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우리 국가와 사

회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근원적으로 바라보아야만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이며 우선적으로 이 사건의 근원적 원인으로 꼽는 것이 압축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정계, 관계, 재계’의 유착 형성에서 빚어질 사회에 원칙과 신뢰의 붕괴이다. 세월호 참사에 깊이 관련된 소위 ‘해피아’ ‘관피아’의 존재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신뢰없는 사회, 권력만능의 사회를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구조 악을 뿌리 깊게 한 것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한 것이다. 곧 선거가 다가오는 때 우리가 정치적 패덕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국가와 민족의 모든 위기는 권력과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무능에서 초래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신뢰가 없는 사회로 만든 것은 국가기관, 대기업, 정치권력 등 지배적인 권력이다’라고 서강대 서복경 연구교수는 말한다. 그는 정치인들은 공약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국사회에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과 원칙을 누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생계활동을 하다 보면 ‘위법적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생활 속에 편재해 있는 구조적 악을 보게 된다. 이 구조악은 우리 내면에 깊게 뿌리를 내려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일상으로 악을 저지르게 된다. 선장과 선원들 해경들이 이런 수준에 있는 듯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 원칙은 힘을 잃는다.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파기되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도 65.8% 이행에 불과하다. 정치인들 공약 안 지켜도 처벌, 피해도 없다. 편법과 위법이 판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약자들만 희생된다. 사실은 이렇게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해선 안된다. 일찍이 플라톤은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우선의 가치가 돈이며, 소유에 목적을 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 확산되었다. 생명보다 돈이 우위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고 자본중심, 자본지배의 사회는 물질화, 맘몬화되어 심각한 빈부 양극화를 초래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는 우리 모두를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자본가들은 혈안이 되어 편법,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이루려 했고 노동을 통해 생긴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과 부정도 불사하는 죽음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생활모습이 되었다. 자본을 더 쌓기 위한 과적, 선박의 불법개조, 이를 감시하는 권력과의 유착으로 생명의 안전은 깡그리 무시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이러한 맘몬주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큰 공헌자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이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시작한 경제제일주의의 자본주의적 가치는 1970년대 한국교회의 삼박자 축복의 신앙과 잘 결합되고 교회는 폭발적 성장을 하면서 대형, 최고급, 부의 획득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 너도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건강, 성공, 부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고 한 것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돈과 권력의 횡포, 그리고 위법적 환경에서 결과한 것이 인간성의 왜곡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경쟁을 결과하고 낙오자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성공론을 확장시켜 교육, 종교계에 그 신화를 양산해 내었다. 경쟁은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인간을 야비한 인간성으로 죽이는 문화를 만연시킨다. 나만 잘되면,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를 아무 죄의식 없이 가진 인간들이 득실되는 사회를 결과한다. 모든 문화 안에는 경쟁원리들이 채워져 있고 모든 관계들은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 연대, 공감의 인간성을 찾아야 한다고 인문학자는 말한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공감은 사랑하게 하고 연대하게 한다. 그러므로 공감적 인간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공감을 뜻하는 영어단어 compathy는 어원상 함께의 com과 고통을 뜻하는 pathos의 결합어다. 바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지칭한다.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다. 이롭기만 하면 그것이 덕이자 선이 되는 시기는 끝났다. 책임보다 더 먼저여야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에서 출발한 책임은 그 결과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권력자, 정부인사들이었던 것에 반해 공감하는 인간성을 잃지 않고 제자나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위대한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된다.

“궁홀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예수는 정말 잘 울고 아픔을 함께한 우리의 참 좋은 지도자이다.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글 | 이영재 (동국대 교수, (사)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 yjlee@dgu.edu)

국가, 기업, 개인의 안팎, 앞과 뒤, 좌우에서 위협의 요인을 제거하며 안전한 상태에서 활동을 추구하는 일이 행복의 첫 걸음이다. 각 개체가 평안한 시절에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사안위(居思安危)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부터 학습교훈(Lesson Learned)을 취하여 법·제도, 매뉴얼, 정책, 관리 등에 환류조치(Feedback)를 하는 활동은 방재안전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다. 세월호 재난(Disaster Ferry Sewolho)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는 어떠한 교훈을 남겼는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해상교통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또는 가족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재난관리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4단계는 평시에 수행하는 예방, 대비활동과 재난발생시 긴급히 수행하는 대응활동, 재난 발생 후 복구 활동으로 구분된다. 재난발생시 긴급히 수행하는 초동대처,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를 포함하는 현장수습관리는 대응활동에 포함한다(소방방재청, 2013). 초동대처는 사고신고접수, 상황전파, 예경보발령, 대피가 주요한 활동이다. 상황관리에는 지시통제조정, 상호협력, 홍보, 자원지원, 통신기반의 의사소

통 등이 포함된다. 현장수습관리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소 지휘하에 유관기관들의 협업, 자원동원 및 배분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재난대응 활동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 기사를 참조해서 세월호 재난대응 프로세스에 어떠한 문제점이 내포되었는지를 초동대처, 상황관리, 현장수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초동대처에서는 정보수집과 상황전파의 부실 그리고 상황파악 및 상황전개 예상 역량이 부족하다. 상황관리에서는 상호협업의 부재, 현장지휘의 문제 그리고 유가족 및 국민에 대한 홍보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현장수습은 초기의 자원동원 실패와 현장과 중앙 간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결여가 주요한 이슈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조직과 중앙조직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먼저 현장조직의 대응활동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방재안전분야 행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생명안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같은 주관기관과 소방 및 해군, 민간단체 등과 같은 지원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육상에서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지자체가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해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운항면허(지방항만청), 운항관리규정심사(해경서), 운항면허 및 운항관리규정 변경(해경서), 선박안전지도감독(해운조합), 선박시설안

전점검(KST)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관이 다양한데 일본 등처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해상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관제(모니터링)가 해양경찰청에 반드시 필요한데 국제해사기구 협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항만청에서 VTS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평시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업자까지 방재안전관리 교육과 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방재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해경과 민간 잠수부들과 훈련을 한번도 못했다는 것이며 또한 영세한 어민들에게 훈련 비용조차도 지급하지 않아 화재훈련 등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시에 교육과 훈련이 없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셋째, 현재 행정관료 서열에 따라 지휘책임자를 임명하고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 그리고 현장경험을 가지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행정서열과 관계없이 현장지휘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행정업무만 다루는 사람을 브리핑, 현장설명 등에 투입했을 때 유가족의 지원, 홍보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조직을 지원해야 할 중앙조직은 어떠한 기능이 요구되는지 새로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본다. 먼저 국가안전처는 독립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단일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 행정업무와 재난안전 업무를 동일부처에서 동시에 담당하게 되면 기관장의 관심이 분산되고 직원들 간 기피대상 부서로 전락되어 업무의 적극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세청 및 기상청과 같이 전문 인력 영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평상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교육훈련을 통해 피드백하고 훈련지도하며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은 행정서열보다 시스템과 지식과 정보를 지닌 전문성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안전처의 조직설계는 기존 조직의 업무 연계성 검토를 토대로 13개 상호협업기능(ESF)과 재난 유형별 대응기능을 조합한 하이브리드(Hybrid)형태의 조직이 되

어야 한다. 미국 등 해외 방재선진국은 기능이 중점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재난유형 관점의 재난관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재난관리에 포함된 기능과 자연 및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주요 핵심은 재난유형과 ESF 기능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조직단위에서 과를 신설하여 주는 것이다. 예로 재난환경정비 기능은 재난 유형인 기름 유출, 독극물 사고, 대형 쓰레기 발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안전대책과’ 라는 조직을 구성한다. 교통 기능은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철도 탈선 등 재난유형과 관계가 있으므로 ‘교통재난대책과’ 라는 조직을 형성한다. 시설응급복구, 에너지, 긴급통신, 의료방역 기능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ESF 기능만 있는 상황총괄, 긴급생활지원, 수습홍보, 물자동원, 자원봉사, 사회질서 및 수색구조는 조직 내에 유사한 과로 임무와 역할을 분장하는 것이다. 예로 긴급생활지원 기능은 재해구호과에 할당한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조직을 가진 국가안전처는 두 가지 기능이 또한 필요하다. 첫째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감찰기능을 가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패턴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및 관리적 안전기준에 따라 점검하여 부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난안전조사 기능을 위탁하는 것이다. 재난대응과정을 조사 평가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으로부터 재난발생 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자기의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상황관리하며 현장수습하는 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헌신하며 희생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안정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동시에 방재 안전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여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은 방재안전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글 | 강교자 (연합회 증경회장)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낫겠나이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살 것입니다”(예레미야 17장 14절)

삶과 일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정확한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목적 없는 걸음은 방향하게 하고, 부정확한 목적은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과정과 수단의 사용이며, 목적보다 성과를 더 중시하는 성과우선주의입니다. 성과우선주의는 결과에만 집착하며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어 결국 부패와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여객선운항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는 안전입니다. 승선운임과 화물운송료 수입은 여객선운영을 위한 수단이며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객선의 불법개조와 불법적인 인허가, 과적화물, 훈련되지 못한 저임금선원 고용 등, 부실운영과 관리의 총체적인 비리는 목적과 수단, 과정과 결과, 목표와 성과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결과입니다. 이렇게 뒤바뀐 가치관은 참혹한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승객의 안전보다 회사의 수입이 우선시되고, 이익 앞에서는 원칙도, 규범도, 규정도, 막중한 책임까지도 무시되는 탐욕과 마비된 양심, ‘끼리’의 이익, 안전, 경쟁만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되는 무책임한 관련자들에게, 그러나 과연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화상 입은

환자가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충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들과 같은 가치관, 철학, 원칙,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살고 있는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 처참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인도, 지도자도, 신앙인도,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아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명령은 세상을 향한 선지자, 선구자, 선각자 책임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 꺼진 등이요, 맛 잃은 소금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 대신 오히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병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까지도 타락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죽음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영적존재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의 질병은 영혼의 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삶과 공동체 구성의 기본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의식, 가치관과 원칙은 건강한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고침 받아야 하는 영적한자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깊고 아픈 성찰을 통하여 철저하게 고침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살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비결을 깨달은 자입니다. 악으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병들고 실패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겸비하게 엎드려 두 손 들고 치료자이시며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낫겠나이다”

죽음은 회복될 수 없는 상실이기에 슬프고 절망이며 아픔입니다. 가장 처절한 상실감은 그 죽음이 무의미하고 억울할 때입니다. 무의미한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그래서,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분들을 향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귀한 생명들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안타까운 죽음을 무의미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닌 값진 죽음으로 바꾸어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삶을 끝낸 자들을 위한 가장 깊은 애도이며, 처절한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유족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이고, 불안과 절망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생명의 새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길입니다.

값진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죽음에 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Y 안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잘못된 가치관, 욕심으로 찌그러지고 병든 이기적인 삶의 목표와 원칙과 방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들의 죽음을 의미 있고 귀한 희생으로 기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 사회도 고침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운동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추모는 단순한 애도가 아닙니다.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기리며 본받는 것입니다. 값진 희생에서 받은 교훈으로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구멍 복을 친구에게 벗어 준 그 희생과 거룩한 용기, 갑판까지 올라왔다가 친구를 염려하며 다시 선실로 내려간 그 배려의 십자가정신을 기리며, 부끄러움으로 우리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승객들을 돌본 책임감, 마지막 순간까지 방송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켰던 모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바른 가치관이며 건강한 세상으로 세우는 옳은 원칙임을 가르쳐준 값진 희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자신을 버린 한 알의 고귀한 밀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 결단을 실행하는 철저한 의지와 헌신과 땀 흘림만이 냇을 잃은 유가족들과 생명을 희생당한 분들 앞에서 죄송스러움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여성들의 공동체, YWCA는 이 결단과 실행의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는 한 여성의 외침이 제 귀에는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기독교인, 교회, YWCA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여성’ 이라고 외쳐온 나, Y 회원과 지도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데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저희를, 우리 Y를, 우리나라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낫겠습니다”

“주님, 저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낫겠나이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재를 화관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녀와서

글 |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멍멍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냥 뉴스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목포에서 불과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진도 팽목항 땀골수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6일째인 4월 21일. 연합회에서 파견한 국장들과 서부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주Y, 목포Y, 순천Y, 익산Y 회장과 사무총장 10명이 진도를 방문했다. 서부지역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양말 468족을 구호물품으로 전달하고 진도향토문화관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체육관으로 향하였다.

날씨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는지 계속 비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 진도실내체육관을 들어가는데 매우 조심스러웠다. 실종자들이 사망자로 확인되어 돌아오다 보니 가족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분위기는 매우 암울하고 침울하기까지 했다. 참담했다.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다. 돌아다니는 것조차 송구하였다. 잠시 밖으로 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팽목항으로 향했다. 실종자들의 유류품 보관소, 실종자 신원 확인소, 실종자 가족 DNA 채취센터, 긴급구조현장 지휘소 등 많은 천막들이 팽목항 부두 방파제에 설치되어 있었다. 신원미상의 실종자들에게 번호가 매겨졌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게 슬펐다.

무거운 마음으로 팽목항을 떠나오는 데 신원이 확인되었는지 이름 모를 텐트에서 한 실종자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통곡소리, 긴 흐느낌, 가슴을 에는 슬픈 울음이 허공을 가득 채웠고 우리의 발길을 무겁게 했다. 팽목항을 다녀온 후 이 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추모 현수막과 노란리본달기, 추모메세지 남기기를 통해 목포Y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다짐하였다.

Column  
컬럼

## 노란빛 위로의 촛불을 밝히다

글 | 전하예 (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우리 사회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생명 살림 운동을 위해 힘써온 Y운동가들과 자원지도자들은 더욱 비통해하고 슬퍼했다. 그 중에서도 안산YWCA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슬픔을 깊게 체감하고 있는 회원YWCA이다. 그러나 한 명 건너 한 명이 인연으로 닿아있는 안산Y에게 앉아서 울고 있을 시간만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매일같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YWCA 회원들을 분향소로 안내하고 섬겨주었으며 밤낮을 잊은 채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섰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산YWCA를 비롯한 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안산시민사회네트워크는 5월 1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인간띠잇기 행사와 안산시민촛불을 진행했다. 연합회와 고양Y, 부천Y, 안양Y는 5월 10일 안산시민촛불을 찾아 안산Y와 함께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유가족을 위로했다. 3시부터 진행된 인간띠잇기 행사에서 시민들은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에서 침묵 행진을 시작해 안산문화광장으로 향했다. 저녁이 짙어질 때쯤 안산문화광장이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시민촛불이 끝날 때쯤에는 안산 지역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2만 여명이 모여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추모공연이 이어졌고,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의 편지가 낭독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는 슬픔에 잠긴 안산지역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주기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즉각 전개했다. 특히 모금액은 안산Y에 전달하여 장기적으로 안산 지역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 탈핵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김익중
- 여성 \_ 현대 기독교 여성,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 | 백소영
- 인권 \_ 자유권규약에서 '자유'의 의미 | 김정린
- 청년 \_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 여수Y 대학Y

#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재처리
- 제10편 \_ 핵발전의 대안

필자는 이전 글에서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을 설명하였다.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의 원전 개수는 25년간 그 자리를 겨우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세계의 원전 개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았다. 그동안 유럽은 원전 50개 정도를 줄였고, 미국도 그 숫자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4개의 원전을 줄인 바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그동안 어떻게 전기를 생산했을까? 줄어든 원전의 전기 생산량을 어디서 보충했을까?

## 줄어드는 원자력, 늘어나는 재생가능 에너지

그림 1은 지난 20여 년 간 전 세계에서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20년 전보다 신설 시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사양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의 풍력, 태양광 발전의 성장세이다. 그림 1은 풍력과 태양광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마치 누계 그래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지만 실은 누계가 아니고 매년 신설된 발전시설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룩해냈다. 세계성장률이 20%를 꾸준히 넘는 일은 인류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신규산업이라고 여겨진다. 태양광은 풍력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하였지만 성장률은 풍력을 능가한다. 태양광 발전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거의 세계성장률 100%를 이룩한

다. 1년에 세계성장률 100%를 기록하는 산업은 그동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그래프를 처음 보는 순간 정말로 놀랐다. 우리나라는 전혀 시도하고 있지 않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세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한참 후에 제정신을 차린 후 필자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었는데, 풍력과 태양광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원자력만 추구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현재 원전을 많이 짓고 있지만 그 래봐야 원자력은 2%에 불과하고 그 10배인 20%의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사실이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풍력발전량 1위국이다.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미 전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자력(11%)의 거의 두배 정도인 20%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재생가능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림 2는 이미 세계 에너지 판도는 재생가능 쪽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나라들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 변화의 방향은 분명히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연도별 신설 핵,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 (그린피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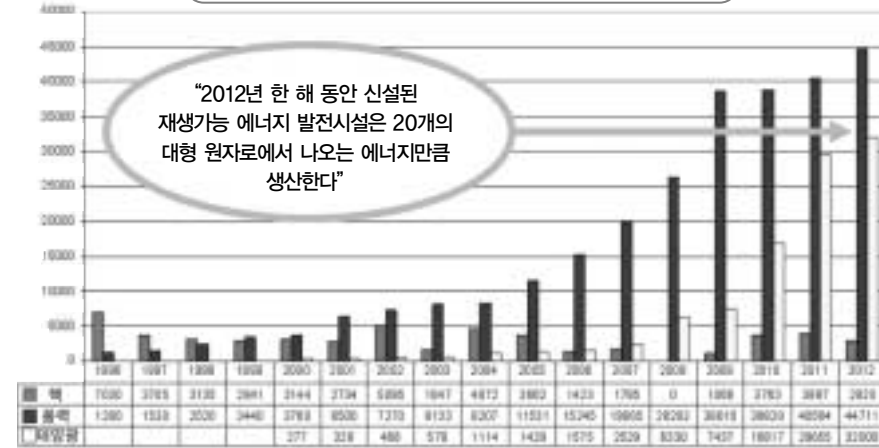


그림 1. 전 세계에서 신설된 발전 시설 비교. 지난 20 여년간 세계에서는 풍력발전(wind)과 태양광발전(solar PV)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다. 반면에 핵발전(nuclear)은 거의 신설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린피스 자료 인용함)

국가별 총 전기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와 핵발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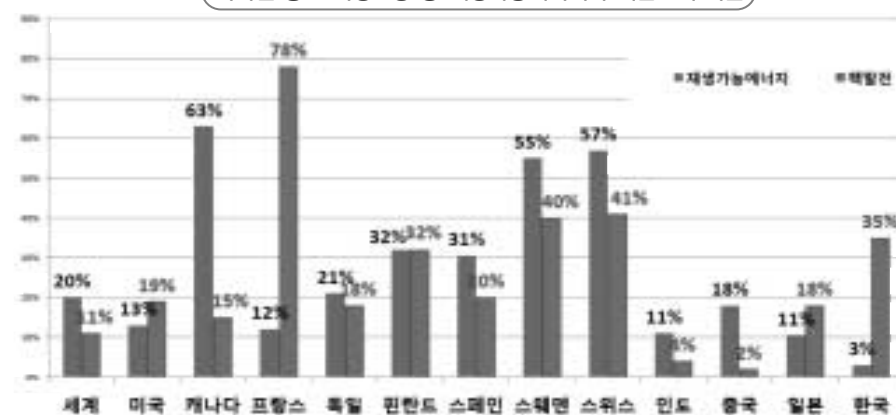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주요국들의 재생가능에너지와 핵발전의 전기생산량 비교. (REN21 자료와 Mycle Schneider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원자력은 35%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재생가능은 3%에 불과하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통계기준이 잘못되어서 순수한 의미의 재생가능에너지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성적이면 OECD 국가 중 꼴찌가 아니라 세계 꼴찌 수준이다. 경쟁자도 없다. 필자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한 바로는 재생가능에너지 1% 미만의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뿐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는 안된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다. 국민이 듣는 이야기들은 모두 '재생가능 에너지는 비싸다. 전기 별로 안나온다. 전기가 간헐적으로 나온다. 전기의 질이 좋지 않다. 너무 많은 땅이 필요하다. 산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안된다' 등등이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다. 정부의 원자력 홍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하

다. '원자력은 깨끗하다. 경제적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므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전기의 질이 좋다. 안전하다.' 등등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되는 원자력 홍보는 온 국민의 귀에 이미 못이 박힐 정도이다.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원자력을 외면하고 있을까? 왜 한국에서 그렇게도 모욕을 당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을까? 긴 말로서 설명하기는 지면이 모자란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의 말과 필자가 확인한 두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 '유럽이 지난 25년간 원자력을 줄인 이유는 원자력이 위험하고 비싸기 때문이었다.'
- 정부는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려면 태양광 판별이 국토의 300%를 덮어야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국토의 2%만 덮으면 된다.
-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가장 값싼 전기 생산 방식은 육상풍력 발전이다.

# 현대 기독교 여성,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

글 |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교양필수 수업을 하다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다. 점점 청년층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경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서 기초적인, 그러나 자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진다. 특히나 영어 강의반 학생들은 성서 본문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늘 He라는 남성 대명사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묻는다.

“아뇨,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별을 뛰어넘어 계시죠. 다만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들의 응시와 전제가 성서 안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똑똑한 아이들은 여지없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럼 성경은 남자들의 편견으로 가득 찬 책이네요? 그걸 왜 우리가 배워야하지요?”

“그래서 ‘성서 안에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복음적 메시지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떠난 페미니스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 성서는 마치 진흙과 모래알이 뒤섞인 다이아몬드 몽텅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안에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들이 가득하다는 걸 아는데, 그 텅어리가 진흙 묻고 모래알로 뒤덮였다고 해서 통째로 버릴래요?”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한다. “아뇨~”, “그럼 어떻게 할래요?”, “진흙 털고 모래알 골라서 다이아몬드만 챙겨야죠.” 고대 근동의 세계를 살며 갖는 문화적 전제나 남성 저술자들이 갖는 성차별적 응시와 같은 진흙과 모래알을 털어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계시적

사건과 메시지를 ‘골라’ 내는 작업을 강의 시간에 해보자고! 그렇게 초청하면 아이들은 납득하고 기꺼이 참여한다. 나의, 똑똑하기 그지없는 21세기 ‘여자’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성서의 세계로, 기독교의 세계로 빠져들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방해물들은 여기저기 널려있다. 특히나 가부장적 기독교가 참으로 오랜 동안 신적 가르침으로 절대화해온 ‘여성 응시’는 단골 걸림돌이다. 창세기 저자는 ‘구약 시절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 도대체 ‘보편적 사랑의 계시’를 받았다는 신약저자들은 왜 또 그렇게 ‘남성 중심적’ 이냐고 다들 난리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임에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강단에서, 예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내의 순종’은 어이상실이라고 목소리들을 높인다.

가부장적 유교 담론은 ‘삼종지도’를 현명한 여성의 도(道)라고 훈육했다.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르는 여성이 덕스런 여성이라고 말이다. 가부장적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도덕적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은 성별을 떠나 전문가적 능력으로 자신의 업적을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가르침이 되었고, 그래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목적에서 선포된 기독교 내의 가부장적 덕목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신성화’된다는 점이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남편의 가장권에 따라 순종하는 보조자라는, 신구약 ‘남성’ 저술가들의 가르침을 ‘창조질

서’라고 더하거나 뺄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하지만, 묻자! 정말 기독교는 여성에 대해 창조질서대로 한 가지 입장만을 고수했는가? 그것이 불변의 말씀이라면 왜 ‘남성’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성서적’ 여성관에 대하여 한결같지 않느냐 말이다. 구약 시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결혼을 창조질서로 선포하셨다던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와 중세 유럽 가톨릭 설교자들에게는 될 수 있는 한 성육을 억제하고 경건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상태보다 더 신실한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남성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성녀’의 삶이 애 낳고 지지고 볶는 일상보다 더욱 고결하다고 왜 입장을 바꾸셨는가 말이다. 중세의 남성 수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응시한 ‘여성성’은 거세될수록 좋은 성이었다. 그것은 성적 욕망에 가득하고 도무지 쓸모가 없는 성이라고 선포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다. “여자의 매력만큼 남자를 높은 정신의 세계로부터 빛나가게 하는 것은 없다.” “남자여, 너는 주인이고 여자는 너의 노예이다. 신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 테르툴리아누스는 더 심했다.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살아라. 그리고 비난 받아라. 악마의 문은 너이니라.”

그러다가 청교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톨릭과는 다른 계시의 말씀으로 결혼 상태를 다시 칭송하신다. 여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응시를 보인다. “결혼처럼 신성한 샘이 또 어디 있으랴?” “좋은 아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여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 여자를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필요선이기 때문이다.”(기독교 남성 신학자들의 여성응시에 대해서는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11장 참조)

결국 남성 신학자들의 여성에 대한 교훈은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교훈이었다. 한 번도 여자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기대에 부

응하여 신학적 주장을 했다는 말이다. 여자라 돕는 배필이라고? 보조자라고? 그건 전근대 시대 남성들의 여성 응시다. 여자는 욕정에 사로잡힌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그건 성육을 억제하며 독신의 삶을 살아야했던 중세 수사들의 여성 응시다. 여자는 사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필요선이지만, 언제나 가장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그건 ‘온건한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근현대 핵가족 구조에 걸맞는 여성상을 그려내야 했던 청교도 남성 목회자들의 여성 응시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여성’은 항구적·본질적 성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다는 말이다.

그럼 묻겠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공적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응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는, 어떤 여성 이해를 말해야 할까? 비록 진흙 묻고 모래알에 섞여 숨어 있어서 그렇지, 성서 안에는 가부장적 남성 응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편 계시가 숨어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구절은 도저히 가부장제 한복판에서 남성들의 제한된 머리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계시적’인 메시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다. 다 동등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남성 한계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다! 그 보편 선언을 소중히 깨내어 이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 대해, 결혼에 대해, 남편·아내의 바른 관계에 대해, 가정의 신적 소명에 대해 말해야 할 때이다. 그 주장들이 권위를 가져야 할 때이다. 지난 수천 년간 남자들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언어를 가지고 공적 장을 가진 신실한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신실함과 선함,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므로! ✝

# 자유권규약에서 ‘자유’의 의미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 자유권의 핵심 : 개인의 생명과 자유,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자유권규약 제3부 처음6개 조항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 즉 자유권규약의 핵심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천부의 권리로 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규약은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 하에 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두어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모라토리움 국가(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다가도 강력 흉악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형제도가 이런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는데, 실제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심각한 우려 중 하나는, 어느 나라든 사법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또는 고의로,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는 이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하는 행위뿐 아니라, 심신에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발적 동의 없이 개인에게 행해진 의학/과학실험, 교도소 및 정신 보건시설을 비롯한 각종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정신대 문제도 고문의 범주내에서 맹렬히 토론되는 주제입니다.

**노예금지**는 노예해방이 이뤄진지 언젠데 아직도 노예문제를 이야기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예제도는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효한 인권문제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장 지글러 (Jean Ziegler) 제네바대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은 노예제도에 다름 아닙니다. 가끔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출국의 협박을 당하면서 임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태는 ‘현대판 노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임의적으로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권력이 개인을 체포했을 경우에는 체포시 체포사유를 알려줘야 하고,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체포된 경우 지체없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인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간헐 자의 권리**는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자유를 박탈당해 시설에 수용된 경우 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형벌이 확정된 기결수와 그렇지 아닌 미결수를 구분하고, 아동을 성인으로부터 분리해서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헐 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간헐 자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범죄자의 권리’라는 제한된 틀에서 상당한 논란거리이며, 인권 내지 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정서를 새롭게 하는 주제입니다.

## 기본적인 자유권 : 사상, 양심, 종교, 의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프라이버시권)**에는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택 또는 통신을 자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간섭당하지 않을 자유, 또 개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합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지만, 다만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는 남의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혹은 갖지 않을) 자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 그리고 모든 유형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찾고 획득하고 나눌 권리를 포함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다른 이의 권리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는데, 실제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워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유권규약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유권규약을 비준하면서 유일하게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내법과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유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유권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그 권리 내용과 권리에 대한 침해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권’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

서 침해의 요소와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침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위 ‘아랍의 봄’을 겪으면서 새로운 매체와 통신환경이 집회와 결사의 방법, 유형, 그 영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권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가 확대 증진되면, 다른 권리들도 따라서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한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할 때 다른 권리가 축소, 침해되기도 합니다.

## 사법절차상 보호되어야 할 인권

자유권규약 제14-16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 각 개인이 어떻게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법절차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 및 무료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변호와 관련한 권리, 참정권, 소수자의 권리,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찾아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논의해봅시다.
- 오늘날 인터넷,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내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 앞서 언급한 기본적 자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의 예를 찾아보고, 이들 권리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토론해봅시다.
- 자유권위원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적한 자유권 관련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자유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OHCHR)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여수YWCA 대학Y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사회봉사체험동아리 W.H.Y(World Hope Yout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온 여수 대학Y 회원들은 바다가 아름다운 여수에서 만나 다양한 봉사활동과 경험을 통해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뻑뻑한 동아리방 칠판 보이시죠? ^^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여수의 대학Y 회원들의 요즘 생각과 고민을 들어볼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대학Y 동아리 정기회의	*공모전 지원팀 소모임	*00지방우 아카데미 놀이체육	*00지역 아동센터	*동아리방 미니도서관 도서정리 (전공책 물려주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준비(with Y-틴)
*대학Y 간부회의	*공모전 제출용 활동 동영상촬영	*00지역 아동센터 학습지도	*00지역 아동센터 평풍교실	*학년모임 -1학년	*기출청소년 야간아웃리치	*청소년독층 아동도시락 배달
		*탈선캠페인 참여			*00지역 아동센터 통기타수업	*장애아동 어린이집 호판정리

Mem○. 여름 : 농촌체험봉사활동,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겨울 : 사랑의물레산타대작전, 신생아모자뜨기 ※ 봉사활동 신청은 밴드에 댓글 달아주세요!

## 가슴 뛰는 삶, 살 수 있을까요?

글 | 김리원 (여수 대학Y 부회장 /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



“커서 뭐할래?” 한 번 짚은 이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소개 부분에 꿈을 적어 내라고 요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꿈이 없어 당당히 말 못하는 제가 싫었고, 또 꿈이 없는 게 죄라도 되는 것 마냥 어른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 많은 도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정 내가 원하는 꿈을 찾으리라! 다짐을 했고,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대학Y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도 해봤고, 낯선 강원도 지역을 5일 동안

돌아다니는 ‘내일로’ 여행도 도전했습니다. 혼자 여행 가기, 몸치이면서도 춤으로 무대에 서기와 같은 목표를 세워 실행해보고, 학교에서 하는 집단긍정심리상담, 힐링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열정’을 배웠고, 아직 꿈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쌓고, 제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만나온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열정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전남대학교만 해도 학생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이 주로 광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수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제약이 있고, 대외활동에 지원해도 지역적 한계 때문에, 즉 단지 ‘여수’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공모전에 도전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을 제치고 수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하다보니 좌절감이 생기고, 겁도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삶, 살 수 있을까요?”

## 제 미래는... '그린라이트' 인가요?

글 | 김미리 (여수 대학Y 회원 / 전남대학교 의공학과 3)



저는 지금껏 착한 자녀로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학교 3학년 공대녀입니다. 초·중·고 12년간 모나지 않게 자라왔고, 원하던 대학, 학과에 입학해 어느덧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학점이면 학점, 대외활동이면 대외활동, 장학금이면 장학금,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 지금껏 성취해 왔습니다. 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어떻게든 기회를 마련했고, 보다 많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애썼으며,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 자신을 철저히 단속해 오면서 말이죠.

그러나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때면 회의감이 들었고, 제 삶에 있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춘의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의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시험, 자격증 공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 등에 정신없이 매달려 왔지만 정작 나를 위한 취미생활은 물론이고, 그 흔한 기차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쫓기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들이 미래의 안정된 삶과 희망찬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취업이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면접관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스펙들을 나열하며 자랑하고, 또 선택받기 위해 애쓰는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의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아~그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내 청춘의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들이 미래의 안정된 삶과 희망찬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취업이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면접관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스펙들을 나열하며 자랑하고, 또 선택받기 위해 애쓰는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의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아~그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내 청춘의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저는 배부른 고민에 빠져있는 걸까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목표를 위해 가고 있는데,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가요?

앞으로 다가올 제 미래는, 그린라이트 인가요?



# 청년의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 YWCA 안에서 발견하고 꽃피우길



인도YWCA 최초의 청년사무총장으로 젊은 여성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청년층 참여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는 라일라 파사 사무총장을 16일 오전에 만났다.

글 | 편집실

한국에 오셔서 연합회 실행위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1995년 서울에서 열린 YWCA세계대회 참가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연합회 활동가들과의 아침예배를 시작으로 올 7월에 인도 살렘지역에서 진행될 ‘도스뜨’ 프로그램 담당자와 후원기관을 만나 지역 여성과 아동 대상의 컴퓨터, 영어교육, 보건 및 인권교육 등의 내용과 현지 실정에 맞는 직업 개발에 대한 협의를 했다. 한국YWCA 탈핵 불의 날 거리캠페인에도 참여했다.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외치고 어르신들, 젊은이, 어린아이들에게 전단지 나누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년 전에 인도YWCA도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다녀갔는데 한국과 일본Y가 함께 탈핵활동을 벌이는 것을 알기에 인도YWCA에서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만나 ‘젊은 여성’에 대한 고민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리더들의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인도Y를 소개하고, 청년층의 리더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Y-위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기회도 있었는데, Y가 얼마나 젊은층을 위한 고민을 하고, 그들의 리더십이 자라도록 노력하는지를 인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서울Y도 둘러보았고,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도 방문해 한국의 직업개발 역사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필요한 직업과 직종개발이 필요함을 배웠다. 7월에 만나게 될 도스뜨 단원들도 곧 만날 예정이다.

인도YWCA에서 사무총장으로 얼마나 활동하셨고, 인도사회와 인도여성의 삶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2011년 인도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24세 때 청년 사무총장으로 YWCA에서 일하게 되었고 1992년부터 4년간 세계YWCA에서 젊은 여성을 위한 코디네이터와 리더십트레이너로 일했다. 벵갈로에 돌아와 지역YWCA에서 거의 10년간 봉사했다. 2010년엔 인도YWCA의 동남쪽을 맡는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인도사회 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족운동에 아주 큰 위기가 있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러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인도YWCA의 사무총장이 된 것 같다.

인도Y를 통해 인도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 직업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과 가난한 여성과 부족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른 여성단체와의 연대, 주창 활동을 전개했다. 가정폭력법과 성 인지 예산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식품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캠페인, 사회복지와 여성권리를 위해 일하는 한편, 군대가 테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 사용에 대한 오용을 막기 위해 군대 무장법(Armed Forces Act)의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YWCA와도 연결하여 스리랑카의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며 인도 여성들의 삶이 변화됨을 느낀다.

크리스천이 2%에 불과한 인도에서 총장님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고 YWCA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요?

개인적으로 9대째 개종자 집안에서 자랐다. 9대를 거슬

러 할아버지께서 인도남쪽의 궁전에서 일하는 시인이셨는데, 카스트제도의 맨 윗 단계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환영과 계시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크리스천 가족 아래서 자랄 수 있었다.

YWCA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우연이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언론학을 공부했는데 졸업 후 인도YWCA를 방문하니 청년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꼭 지원해 보라고 권유받았다. 당시 아버지께서 인도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던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년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저는 24세였고, 가장 나이가 비슷한 동료는 25살 이상 차이가 났다. 처음 5년은 전설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여성리더십을 가진 당시 60세이신 칸 여사를 만나 일을 배웠다. 칸여사는 내가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것을 기다려 주었고, “젊은 여성이기에 당신은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용기와 격려, 또 새로운 길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세계YWCA에서 일하신 경험과 현재 인도YWCA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 코디네이터로 일을 시작해 4년 동안 세계Y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환상적인 여성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젊은 여성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여 나는 두 명의 인턴과 함께 일했는데, 그중 한 명이 한국에서 온 김정린(현재 월간 한국YWCA 인권칼럼 필자)이었다. 세계Y의 8개 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훈련과 워크숍을 조직하고, 청년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세계여성단체와도 일했다. 1년 후에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맡았고, 그 훈련을 위한 기금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한편 각 나라의 사무총장을 양성하는 강의 코스도 개발했다. 1995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대회 준비도 했고, ITI리더십 프로그램 4단계를 개발하여 강의 코스를 만들기도 했는데 당시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총장님이 인도 여성을 위해, 특별히 YWCA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인가요?

나의 미션은 YWCA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받은 훈련과 혜택, 경험을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아직까지 자기 의견이나 권리,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여성권리와 평등에 관심이 많고, 이것은 YWCA의 목적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무를 이루기 위해 희생과 겸손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는 것의 모범이 나의 일의 동기이다.

인도와 한국YWCA가 앞으로 세계여성들과 함께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모두 위험을 각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 또 각 Y가 있는 배경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통해 모든 여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YWCA가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인도사회는 창의성과 융통성,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2%가 기독교인들이지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떨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믿음의 적용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문제 제기하고 연대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슈들도 용감하고 창의적으로 사회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며 그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YWCA활동가나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YWCA는 위대한 선배봉사자와 활동가의 유산과 세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며, 그래서 청년들은 YWCA(Young Woman Christian Association)에 함께 머물며, 그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시민이 되는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 2014 회원대회 현장을 찾아서

글 | 편집실

## 북부지역 회원대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리더십

강릉Y · 동해Y · 서울Y · 속초Y · 원주Y · 인천Y · 춘천Y



여는 예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는 영상을 다함께 목상했다.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 모두가 생명을 소홀히 여겼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에 대한 부끄럽고 미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다. 북부지역위원장인 차귀숙 서울Y 회장은 대회사에서 인간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회원대회의 목적을 알렸다.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이 생명세상이며 평화세상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다. 오후 강연에서는 이계삼(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밀양 송전탑 이슈에 관해 의미를 전하고, 북부지역 회원들이 탈핵 현장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6.4 지방선거를 맞이해 열린 오전 주제강연의 강연자로 나선 김진애 건축가(서울포럼 대표)는 '착하고 유능하게'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착하다' 라는 말이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예전과 달리 '21세기형 착함' 은 공정무역이나 친환경과 같은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착한 사람, 착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속이려 들고 무시하는 세태에서 우리는 다음의 '착하고 유능하게' 일하는 방식을 습득하여 '세상을 살리는 여성 리더십'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인 회원들은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 〈김진애 대표가 제안하는 '착하고 유능하게' 일하는 방법〉

- 첫째, 현실 메커니즘을 꿰쳐!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 둘째, 경제 감각은 필수다. 돈 감각, 경영 감각, 산업 감각, 거시경제 감각을 갖고 있어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
- 셋째, 추진력은 필수다. 추진력 있는 사람은 신뢰를 몰아온다.
- 넷째, 친구와 동료로 넓히는 소통력을 기르자!

# 생명세상을 만드는 여성들의 선택!

- 2014 지방선거 유권자, 후보자 평가 -

2014년 6월 4일은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성실한 후보자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거를 만들어가는 일에 YWCA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YWCA

### ※유권자 자가 평가

내 용	예	아니오
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홍보물)와 개인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참석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활동 의지를 확인하였다.		
<b>【유권자로서의 다짐】</b> “나는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거나 흑색선전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명 : )		

### ※후보자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예	아니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	무분별한 개발사업 NO! 전시성 사업 NO! 예산낭비 NO! 무분별한 예산낭비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 필요하다! 시정·구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역을 위한 공익활동과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회 위험을 초래한 범죄 NO!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회위험을 초래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이 없다.		
공인으로서의 자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www.nec.go.kr) 참조	성실한 납세는 기본! 체납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선거는 공정하게! 선거를 위한 금품, 향응,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이 없다.		
	아동·청소년 영유아, 아동의 공공보육 지원 정책이 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다.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준비	탈 핵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과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있다. 에너지 저소비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책이 있다.		
	여 성 사회 곳곳 성불평등 요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있다. 여성과 어린이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있다.		
	돌 봄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이 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 있다.		

동부지역 회원대회, 태양과 바람을 품고 생명을 바라보다

거제Y 김해Y 대구Y 마산Y 부산Y 사천Y 안동Y 양산Y 울산Y 진주Y 진해Y 창원Y 통영Y 포항Y



5월 19일 부산에 모인 동부지역 15개 회원YWCA는 더운 날씨임에도 탈핵에 관한 열정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전 주제강의를 맡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는 '방사능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피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어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방사성물질의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일본산 수산물과 세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표고버섯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린이보다 유아가, 특별히 태아가 방사능에 민감하다는 점을 수치를 데이터화해 설명하여 회원들이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구구절절이 공감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탈핵선포식을 통해 어린이, 대학생, 청년, 성인, 어르신 회원 대표가 나와 실천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어진 탈핵문화공연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방한한 일본인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간다가오리(후쿠시마지원 사람과 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은 1인 연극의 요소를 넣은 강담(講談) '체르노빌의 기도'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후 피폭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풀어내었다. YWCA 불의날 캠페인의 주제가로 불리는 '핵을 반대합니다'를 부른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예술단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연을 진행했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참석 회원들은 동부지역 회원대회의 소감을 남겼다.

• 진주Y 이주여성 대표로 참석한 임향금 회원

"비자 연장할 때 이후로 부산에 처음 와보는데 YWCA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 포항Y 김인자 회장

"오전 주제강의에서 탈핵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 나니 경각심이 들었고, 실생활에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위원분께서 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회원대회가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산Y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장예진 간사

"YWCA가 3년째 탈핵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는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처음 회원대회에 참석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탈핵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거제Y 김복례 부회장

"세계적으로도 탈핵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아직도 탈핵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국이 탈핵으로 가는 데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YWCA회원 결의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극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재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공기 중으로, 또 바다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새어나가고 있고,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산산이 분열되었고, 수많은 부모들이 갑상선암과 백혈병을 앓는 어린 아이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고통이 회복될 수도 없으며 영구히 지속될 뿐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그리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뼈아프게 알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는 이웃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23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핵발전도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에 빈번히 일어난 지진, 지난 10년간 발생한 180여 건 이상의 핵발전소 고장, 줄줄이 밝혀진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 수명을 다해 폐쇄해야 마땅한 노후핵발전소 연장운영 등등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치명적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설립하고 또 운영되는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OO 지역 YWCA 회원들은, 불의하고 반생명적인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대안에너지 중심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한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수명연장 노후 핵발전소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완전 폐쇄하고,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지속 촉구한다.
- 하나 핵없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대량생산, 대량수급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저소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에너지 모니터링과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참여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간다.
- 하나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선다.
- 하나 생명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한다. 핵발전소를 세우고 유지하여 낭비와 안락을 추구하는 무분별하고 탐욕스런 대량소비사회 문명을 타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 운동을 전개한다.

## ‘여성과 아동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한 YWCA회원 결의문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폭력은 여성과 아동들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있다. 가정 내에서는 물론 사회 속에서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과 여성들에게 잔혹하게 가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여성의 몸을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현실로 인해, 평균 88세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55명의 절절한 증언은 오늘날까지도 무시당하고, 일본은 그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보상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아동·청소년 자살율 5위 국가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온갖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몰려 죽음으로 목소리를 잠재우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돌아보아야만 할 때이다.

한편, 세계 경제 순위 15위에 이르는 한국은 성별격차지수가 세계 111위, 여성정치참여수준은 88위이다. 여성들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남성대비 반도 못 미치는 39%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 형제임을 인정하는 우리 YWCA 회원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물리적 힘에 의해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정의, 평화,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죄악임을 절박하게 인식한다.

이에 우리 OO 지역 YWCA 회원들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성과 아동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가정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적 제도와 대책을 만들며, 인권에 바탕을 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하나** 모든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확대와 성인지 정책을 정착시킨다.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의 성인지 정책을 정착하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하나** 남녀차별 고용관행을 개선하자. 출산과 육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지원되는 지역 내 여성 일자리를 만들도록 촉구할 것이다.
- **하나** 안전한 보육, 안전한 급식 감시를 실시하자. 언제라도 가까운 곳에서 질이 좋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급식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하나** 돌봄 노동 가치 인정을 촉구한다. 돌봄 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4년 5월  
YWCA회원대회 참가자 일동

# 회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성인지 운동으로!

글 |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2014년 진행되는 경기지역YWCA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사업은 2013년에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 보완된 2014년도 지침의 관점에서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작년 모니터링사업에서 이행여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2013년 경기지역YWCA 모니터링결과 12개 지자체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건수는 총 905건으로 법령이 543건(60.0%), 계획 11건(1.2%), 사업이 356건(39.3%) 이었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과제수는 지자체별로 적게는 12개부터 최대 68건으로 나타나 격차가 큰 편이었다.


이중에서도 예산의 형평성부분의 작성도는 32.3%로 가장 낮았으며, 성평등 조치사항도 47.1%인 절반 미만만이 응답을 한 상황이었으며, 어떤 보고서는 분석내용은 모두 빈칸으로 두고 조치사항만 적은 것도 있어 과제담당자들의 집체형 전달식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 이행점검을 보고해야 하는 성평등 조치사항의 결과를 보더라도 356건의 사업 분석중 47.1%만이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비워둔 상태였다.

과제담당공무원이 비교적 성의를 갖고 제도개선사항을 적어놓은 절반 정도에서도 YWCA 모니터링단의 시각에서 볼 때 30.2%는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으며, 20.2%는 성평등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된 바 있다.

즉,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평등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한 경우는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트를 통해 내용적으로 보완되지 않거나 컨설팅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여가부 지침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의 의견제시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경기지역YWCA는 작년에 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작성내용의 충실성여부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을 강화해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트와 여성단체활동가 등 대상자를 확대시켜 제도추진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좀더 세부적으로 포함시키고 지난해와 같이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과 의무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성인지감수성교육이 강화된다.

앞으로 경기지역YWCA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지역YWCA별로 전문모니터링단이 구성되고, 전문강사진들이 마련되어 회원교육, 자원지도자교육, 실무자교육을 통해 한국YWCA 6대 운동과제인 성인지운동을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회원운동으로 발전되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부천시, 전국 최초의 '진흥형 조례' 탄생!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가능
-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위원회' 만-관-시민파트너십 발휘, 규제 아닌 실질적 진흥 조례 탄생케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후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내부피폭 위험고조,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어른들의 몫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자성과 방사능물질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아이들이 또다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3일 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와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관련 조례안'은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며 규제형 조례가 아닌 진흥형 조례로 급식시장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




급식산업 진흥 조례'는 부천시 한혜경 의원과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 그리고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부천YW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가 함께 만든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된

'진흥형 조례'이자 전국 시범조례로 선정된 조례이다. 기존 '방사능오염방지 급식조례'들의 한계를 벗어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 기준의 취약성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유도적 정책 전환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한' 부천시 진흥형 조례 '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조례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서울의 방사능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에서는 부천조례안을 '전국시범조례안'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2014년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내실있는 인적구성, 인증사등과 관련한 치밀한 심사기준 마련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지역의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조례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 

글 | 한국YWCA연합회 (4월 23일자 보도자료)

# 가만히 있으라구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글 | 송록희 (부천YWCA 사무총장)



조례 통과 후 기쁨을 나누는 부천YWCA회원들과 와 학부모들 (2014. 04. 23)

세월호 아래 차디찬 바닷속에서 스러져가는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절망스런 대한민국의 한쪽 작은 도시에서, 우리는 흐느껴 울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들만 희생당하는 이 현실, 이 시스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부천의 엄마들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바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빛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뜻을 함께할 단체를 모으고, 발의할 시의원을 만나고, 타 지역 조례를 검토하고, 수십 수백 번 조례안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부천시의원 29명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 한손엔 빵을 들고 한손엔 간절할 마음을 적은 손엽서를 들고, 엄마들과 의원들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 자료집이동이 난 공청회, 상임위 방청, 본회의 방청, 조례가 통과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그렇게 엄마들은, 시민들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자치조례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는데 그들은 "이는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례 남발이며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1년 365일 총 1,095끼니 중에서 불과 260여 회만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것뿐이니, 가정식과 외식업체가 더 문제"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네요. "식품안전법,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그냥 지금의 행정조치

를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라 하네요. 마치 세월호 선장의 말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점심 한 끼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방사능 없는 급식을 먹이자는데, 참으로 많은 논리로 무장해 반대들을 하시네요.

물론,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조례를 만들었냐구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지방과 마을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 나라의 저 높은 곳에 있는 법과 제도, 국회, 교육부, 교육청, 상위법, 국가기준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교육부는 식품안전부는 법무부는 해수부는 정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니, 가만히 있으라구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구요? 엄마들이, 시민들이,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는 절대로 먼저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망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전국의 회원Y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힘이 부족하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엄마들을 보내주시어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Y운동체의 귀한 생명운동이 52개Y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을 밝히던 날

글 | 김은희 (수원YWCA 이사)



제8차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한 수원YWCA (2014. 04. 29)

지난 4월 29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13일째,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 떠나 할 것 없이 슬픔의 격랑 속 한복 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나는 TV와 신문을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 우울과 무기력과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 치유가 필요할 시점에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날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하늘도 어두웠으나 수원Y는 본부와 지부에서 이사와 실무자 18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캠페인의 의미와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권유하는 자세에 대해 이윤숙(연합회) 부장의 설명을 들었다. 그저 세월호의 슬픔과 수면위로 드러나는 추악한 검은 공생관계에 한탄과 분노, 절망과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명동에 위치한 연합회 건물 앞은 캠페인을 전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수원Y 이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하고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알리며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국 핵발전소의 현주소는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국내 가동 핵발전소에서 154건, 국내 신규 핵발전소에서 27건 등 총 18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절대 안전을 담담할 수 없다고 하니 세월호의 안전 불감증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는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음성으로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독일처럼 원자력을 포기하자”고 소리높이 외쳤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도 아닌 무심히 걸가는 사람들을 향해 대로에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질러 본 적이 일찍이 없었으나 꽃봉오리 같은 생명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묻은 마당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을 막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화요일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의 말로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른 때보다 뜨거운 편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있는 게 아닐까. 아침부터 흐린 하늘이 드디어 눈물처럼 비를 뿌린다. 우리는 우산을 쓰고 서명을 받으며 대체로 반응이 좋은 명동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귀찮아하는 직장인들, 자진해 서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기도하며 여성들의 힘으로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나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상처받은 내 심령이 자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노라고 고백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위한 생활 속 실천으로 불편해도 나부터 절전하고 나아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또한 그 정신을 확산시켜나갈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위험한 불은 끄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을 밝히는 그 날까지 이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다. 🙏

# 보이지 않는 세계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 읽기 (Lectio)

### 요한복음 20장 19절-29절

19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7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28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 묵상 (Meditatio)

1.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3.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4.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21절)
5.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

엇입니까? (22절)

- 6. 그 때 함께 있지 않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24절)
- 7.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를 보았다고 하자 도마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25절)
- 8.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27절)
- 9. 예수님을 본 도마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28절)
- 10.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9절)

### 기도 (Oratio)

#### 보이는 세계의 침몰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17명이 다쳤고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성수대교는 정밀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대한민국 업계 1위를 달리던 초호화백화점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4층으로 설계된 건물이었으나 5층으로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넓은 매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벽과 기둥을 없애는 불법 공사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5층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총 1,445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한국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년간의 운항권 독점, 형식적인 안전점검, 계약직 선장, 기관장이 선장보다 권한이 강한 무질서 등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보이는 세계, 즉 물질의 이권, 권력 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려는 것을 사랑이 없다고 공격합니다.

-Q: YWCA는 목적문과 공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고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닫았습니다.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방 안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은 "신령한 몸" (σπυριτυικο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고 보이는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에이레네(ειρηνη),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Q: YWCA 운동가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보이는 세계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을 받으라고 자신의 숨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라고 증언했습니다. 도마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



의심하는 도마(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카라바조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고서는 믿지 못하겠소!"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보이는 세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Q: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 사이에서 나는 YWCA 운동가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도마는 내가 본 세계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세계만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도마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를 주인이라고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마는 자신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명과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 관상 (Contemplatio) / 실천 (Praxio)

1)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2) 나는 보이는 세계를 떠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까?

3) 자신의 욕망보다 생명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 교육과 지식이 실천으로! 지역이 변한다

글 | 최수산나 (연합회 Y아카데미 부장)

## 교육, 지식을 넘어서 실천으로

“교육은 시민들이 사회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또한 그 지식은 교과서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다” 알베르토 망구엘의 저서 「책 읽는 사람들」에 나오는 구절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행동하는 시민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이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글(문자)과 삶의 경계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 자신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만드는 일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식의 문턱을 넘어 현실 속 실천의 길로 들어서는 값지고 귀한 열매를 위해서는 때로는 동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부단한 교육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 Y아카데미 지역센터

한국YWCA의 Y아카데미는, YWCA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운동들의 핵심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Y 운동을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YWCA의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자, 그리고 이사 위원 등의 자원지도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급별, 경력별, 직무별, 운동영역별 등의 다층적인 전개방식과 목표를 갖고 진행되어왔다. 2010년 아카데미 지역센터를 두기로 하고 중부지역

(청주Y)과 경기지역(안양Y)에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현재는 5부 지역에 걸쳐 아카데미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지역센터를 담당하는 회원Y는 고양Y(경기), 청주Y(중부), 서울Y(북부), 순천Y(서부), 대구Y(동부)이며, 각 지역센터가 운영하는 교육은 한국YWCA 정책교육, 찾아가는 회원Y교육, 중견활동가 네트워크, 회원멘토링 The SUP 등이다.

아카데미 지역센터는 연합회 주관 교육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위원회가 자치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역센터는 2년 주기로 담당 운영하되, 가능한 지역위원장이 속한 회원Y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아카데미 지역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깊은 교육 논의가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데미 지역센터는 지역 내 지도력이 주체가 되어 각기 속한 지역 내에서 회원Y가 고유의 운동을 전개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새롭게 운영을 맡은 곳들과 더불어 지역센터는 2기를 맞이하여, 지도력 발굴과 순환, 특히 젊은 지도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내 회원Y 간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한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 2014 한국YWCA 정책교육

올해 한국Y 정책교육은 탈핵, 평화통일, 여성폭력에



서부지역 정책교육을 마치고 (4월 17일 순천Y에서)

방, 성인지, 돌봄노동권 강화,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활동성화 등의 6대 과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 중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와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사, 위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 60~1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4월 중에 경기, 서부, 중부지역이 정책교육을 운영하였는데, 경기와 서부는 탈핵운동으로, 중부는 탈핵과 평화통일운동으로 진행하였다.

경기 지역은 ‘탈핵운동과 파수꾼의 영성(강사: 장운재 이화여대 교수)’에서, 핵은 하나님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으며 피폭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다는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탈핵의 사명을 다졌다. 서부지역은 ‘탈핵운동과 한국YWCA(강사: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를 통해, 일상 속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부천Y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활동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급식조례제정운동 전개와 더불어 개인 실천 활동들(플로그뽑기, LED교체하기, 계단이용하기 등)을 결의하였다.

중부지역에서는 ‘탈핵, 우리시대의 소명(강사: 김기석 용산청과교회 목사)’으로, 기독교인들이 털 소유하고 털 쓰면서도 행복한 삶을 통해 핵이라는 혼돈의 문을 덮고 생명의 삶을 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독교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었다. 뒤이어, ‘평화통일(강사: 한완상 전




중부지역 정책교육 탈핵운동 워크숍 중에서 (4월 21일 청주Y에서)

통일부총리) 강의를 통해, 남북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생성하는 발전(發善)의 복음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소망하고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회원Y별로 평화통일 운동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워크숍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6대 과제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핵심지도력인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지역운동의 주체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해, 이후의 활동으로 관련 교재 제작과 활용 방안, 후속 교육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 Y는 사람이다: 사람의 성장을 통해 지역이 변화한다

YWCA 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그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다. 한두번의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이 활성화되고 시민사회가 살아나는 가장 큰 동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일 것이다. 운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업이나 활동이 잘되어 지역에 성과로 남는 것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의 성장이다. 잘 훈련된 한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역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YWCA는 사람이다’라는 명제 하에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살려온 일들이 각기 회원Y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쓰고자 한다. 

# 연합회 소식

## 5월 월례아침기도회

5월 월례기도회가 5월 1일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설교를 맡은 강교자 연합회 중경회장은 '주님, 저희를 고쳐주소시오' (예레미야 17:14)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책임감과 슬픔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추모와 회개운동에 Y가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기도의 시간에는 모두의 책임임을 동감하고 회개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명과 상생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YWCA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 p.12~)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모금

연합회는 52개 회원Y와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5월 2일까지 전개했다. 모금액은 안산Y에 전달하여 안산 지역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회원Y별로 추모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하였으며, 추모리본을 3만개 제작, 배포해 회원Y 교육이나 캠페인 시 리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5월 7일 한국YWCA 입장 발표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에 아픔을 통감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눈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 p.4)

## '여·세' 창간호 발간

4월 20일 창립 92주년을 맞아 한국YWCA 정론지 '여·세'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번 창간호는 2013년 전국의 회원Y와 함께한 생명포럼과 연계하여, 생명위기 시대의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YWCA 내외부 전문가들의 글로 담아냈다. 전국 56개 서점에서 판매되며, 정가는 1만2천원이다.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사회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프라 전반에 대한 기본 수칙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Y(제7차, 제9차), 수원Y(제8차), 충주Y(제10차) 등 회원Y의 참여로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래된 선령(선박 나이)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사고율과 직결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안전 불감증과 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윤을 선택하는 생명경시,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무방비 등이 핵발전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적극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불의날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EM 활용 교육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Y 생형 성인심 사무이사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해 EM 관련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협회 이사진은 교육 후 5월 6일 임원회, 5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EM의 안정공급 방안을 연합회에 요청하여 연변지역사회에서 EM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 2014 YWCA 전국회장단 연수

2014 YWCA 전국회장단 연수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버들캠핑장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회원Y 회장과 부회장, 연합회의 회장단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하여 YWCA 운동 이해를 통한 지역 운동성 강화와 시민운동과 모금에 대한 이해 및 회장단 역할 강화,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연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책임자 자리에 있는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한국YWCA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제들을 깊이 공유하고, 그 모든 것에 앞서 영적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기도회로 마음을 같이 했다. 또한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노란 리본을 만들어 안산Y에 전달했다.

## 씽크머니 협약식 · 금융강사교육



2014 YWCA-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협약식이 4월 22일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씽크머니 협약식에는 연합회 차경애 회장과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은행장 등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식 이후 2014년 제1차 한국씨티은행 금융강사교육이 진행되었다.

## 신임사무총장 연수

4월 25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신임사무총장 연수가 있었다. 류인숙 사무총장(제천Y), 유덕순 사무총장(대전Y), 이해정 사무총장(청주Y), 조혜원 사무총장(통영Y)이 참여하여 사무총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사무총장들은 연수를 통해 각자의

Y에 대한 비전과 꿈을 나누고, Y를 사랑하고 Y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총장이 되기를 다짐했다.

## YWCA은학의집 전국노인요양시설 평가 최우수A등급

YWCA복지사업단 은학의 집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평가 전국노인요양시설 최우수A등급을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평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과 최우수기관 현판을 받았다.

## 일본군 '위안부' 일역명 서명운동

연합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및 전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을 펼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일역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YWCA를 통해 전세계 YWCA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6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명을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1차 서명은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www.womenandwar.net/100million](http://www.womenandwar.net/100million)

##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참여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연합회는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하기로 했다. 활동 내용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요구 및 경고 서한 보내기, 국가기관들의 정치중립 위반(의심)행위 시민감시 및 시민제보 등이다.

**등 정**

-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이사 변동  
김재화 이사장, 이은화 이사, 임국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강교자 연합회 중경회장, 차귀숙 서울Y 회장, 하선규 부산Y 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 인도Y 사무총장 방한  
인도Y 라일라 파사(Leila Passah) 사무총장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 한국기독교 문서선교협력위원회 2013년 올해의 역자상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 복부

####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 생활돌보미 임원훈련

생활돌보미 임원훈련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동안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훈련에 참가한 가사, 산모, 아기돌보미 임원 105명은 '가장 행복한 YWCA 회원이 되자 - 일하는 회원! 사랑하는 회원! 희망이 있는 회원'을 주제로 예배와 감수성 키우기, 특강, 임원의 역할, 공동체훈련, 회원관리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인천YWCA | 이한나 간사

##### 대학청년Y 주최 탈핵 교육

인천 대학청년Y에서는 5월 17일 대학생과 청년 40여 명과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지역의 대안을 주제로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을 모시고 강좌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 간 환경을 주제로 한 SNS 활동을 통해 개별 및 팀 과제를 수행하고 6월 21일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날 예정이다.

#### 강릉YWCA | 박지윤 간사

##### 회원중모운동 발대식



4월 22일 강릉YWCA에서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라는 주제로 회원운동중모 발대식을 가졌다. 이천진 목사(공정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사랑을 품고 지속적인 회원운동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지도자들과 실무자들이 올해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 회원중모발대식

4월 22일 본 회관 강당에서 2014 회원중모발대식을 진행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14년 회원중모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기도했다. 이천진 목사(공정교회)의 강의를 통해 회원중모의 중요성과 Y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겼다. 이사·위원·회원 총 40명이 참석했다.

#####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한식조리사' 과정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다양화 조리와 건강육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조리기술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리기능인이 되기 위한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하도록 총 168시간의 '한식조리사' 과정이 진행된다. 4월 21일 동해YWCA 3층 강당에서 개강식이 진행됐으며, 선발된 20명이 모두 참석했다.

#### 속초YWCA | 김희숙 간사

##### 평화통일 세미나

4월 17일 속초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오성훈 목사(PN4세대)를 모시고 '통일코리아와 분단코리아의 갈림길에 서서 희망을 보다' 라는 주제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반쪽짜리 한반도를 지워버리고 통일코리아 전체를 우리나라로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심는 계기가 되었다.

#### 원주YWCA | 신미선 간사

##### EM 무료 교육

4월 16일 올해 처음으로 EM 무료 교육이 있었다. 8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쌀뜨물과 천일염, 흰 설탕을 재료로 직접 EM 발효액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통해 환경지킴이로서 첫 수업을 가졌다.

#### 춘천YWCA | 이복희 본부장

##### 춘천YWCA·춘천YMCA 세월호 참사 연합기도회



춘천YWCA는 춘천YMCA와 4월 24일 오후 6시 30분에 강원도청 앞 시민공원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촛불 기도회를 가졌다. 세월호 침몰로 실종된 청소년들과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깨닫고 참회하는 자리가 되었다.

### 경기

####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 방사능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모니터링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양시 유통 농수산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한다. 모니터링 활동은 5월 중 4회기의 강의를 서울시민방사능센터의 활동, 방사능과 인체피해, 먹거리 안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후 월 1회 농수산물 구입 후 서울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며 모니터링단의 역량강화와 탈핵운동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탈핵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 2014 이사·실무자 연수

4월 25일 버들캠프장에서 부천YWCA 이사·실무자 연수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위한 기도로 시작된 이번 연수는 이천진(공정교회) 목사의 '탈핵종소리'를 시작으로 이윤숙(연합회) 부장의 탈핵운동 이해와 실천에 대해 강의와 명진숙(연합회) 국장의 회원중



모운동 전략수립 워크숍이 진행됐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 Y-틴 인준식



4월 12일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Y틴 회원, 청소년 지도자, 학교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인준식이 개최됐다. 홍승화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인준식에서는 수원지역 15개 Y틴 동아리 인준과 지도교사 14명, 청소년지도자 17명이 임명을 받았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성실히 회원활동을 한 박준성(영생고, 19세)과 남상훈(창현고, 18세) 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Y틴 발전에 기여한 백일현 교장(삼일중)과 정의호(다산중) 교장에게는 감사패를 전했다.

####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 세월호 희생자 추모 안산시민촛불

##### '애들이, 미안해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줄게'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에서 3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를 구성하고 희생자의 추모와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안산시민촛불을 지속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1



천여 명의 시민이 함께 모여 인간띠이기, 거리행진을 통해 학생 자들을 추도하고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촛불을 밝혔다.

**안전한 먹을거리 강사 양성교육**

생활 속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안전한 먹을거리 강사 양성교육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했다. 식량주권 문제를 시작으로 육류소비에 따른 환경과 건강 문제,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국내식품의 안전문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전개하였고 수료생 27명은 앞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안양YWCA | 김희정 간사**

**안양지역여성 후보자들과의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안양여성연대는 5월 9일 안양시의회 시민토론폰에서 여성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자리에서는 여성후보자들의 출마동기와 소신들을 밝히고 선거준비상황과 어려운 점 등을 나누었으며, 여성단체에서 여성후보자에게 기대하고 당부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정당을 초월해 여성단체의 정책요구안을 공통공약으로 추가하기로 하였고, 5월 16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특강 '탈핵을 말하다'**

4월 10일 이유진 환경운동전문가를 모시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를 살아가는 법' 이란 제목으로 탈핵운동 환경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 속에 존재하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특강에 참가했던 안양Y 실무자와 자원지도자 그리고 40여 명의 회원들은 탈핵운동가로서의 공동목표를 인식하며, 안양방송 등 언론사 취재는 탈핵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가 워크숍**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인 활동가와 결혼이민여성 활동가가 함께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편견을 점검하고, 언어충격경험, 역할극(Role-play) 등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훈련으로 활동가로서의 진정한 이해와 의식개선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중부**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행복공감 별빛교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복공감별빛교실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아동 야간보호사업(15시~21시)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우쿨렐레, 독서백신프로그램, 경제교실, 종이접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원을 통해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주YWCA | 박보람 간사**

**2014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4월 29일 70명의 이사, 위원, 클럽회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했다. 강교자 연합회 증경회장의 '회원증모는 YWCA 운동의 기본입니다' 라는 강의와 2014년 회원증모운동 계획발표, 대대별 각오와 비전발표로 회원증모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2014년 회원증모운동은 197명의 회원과 5개의 직원클럽회원이 활동조원으로 조직됐다.

**충주YWCA | 김세희 간사**

**2014년 Y-틴 인준식**

5월 17일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충주 Y틴 회장 최예진(한디고3), 부회장 옹다누리(한디고2), 총무 박한나(한디고1), 서기 김은서(탄금중3)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원선서 및 Y-틴 목적문을 낭독하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014년 충주 Y-틴은 환경·경제·탈핵교육을 통해 충주지역에서의 캠페인과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논산YWCA | 김화선 팀장**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5월 9일 논산중앙초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2,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아침밥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

성을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새벽부터 건강한 재료로 만든 주먹밥, 요구르트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8번째 실시하는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서천YWCA | 이미란 사무총장**

**세월호 구호물품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카페·나눔장터**



4월 25일 서천군여성문화센터 1층 북카페에서 세월호 구호물품 기금마련과 서천Y 수익사업을 위한 일일카페와 나눔장터가 열렸다. 차와 다과를 준비하여 판매했고, 특히 나눔장터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찾아와 3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세종YWCA | 홍진영 팀장**

**세종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4개의 타 단체와 함께 주최했다. 티브로드 방송사와 함께한 토론회에는 세종Y-틴 청소년들이 방청대표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네 명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공통질문과 발언을 듣고 세종시에 꼭 필요한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귀 기울이며 주의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토론회는 2회에 걸쳐 세종시민들에게 방송될 예정이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2014 회원증모발대식

4월 28일 3층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2014년 회원증모 계획 및 특강, 사례발표를 통해 회원증모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대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엄마와 함께하는 '토요에너지 교실'

4월 12일에 엄마와 함께하는 '토요에너지교실'을 개강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 및 아이 40여 명이 모여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전기를 쓰고 위험한 원전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교육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유가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광주YWCA, 광주CBS, 광주NCC, 광주YMCA 공동주최로 세월호 실종자 생환기원과 유가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4월 23일 오전 11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가졌다. 꽃을 피지도 못하고 유명한 달리한 단원과 학생들과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부디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5·18 제34주년 기념 오월Y시민포럼

5·18 민주화운동 제34주년을 기념하여 '제20회 오월Y시민포럼'을 5월 15일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제1부故박용준 열사 추모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 제2부 오월Y시민포럼 '5·18과 여성', 제3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진행됐다. 5·18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광주Y 대의동 회관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5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친친 와이파이즌'

4월 3일, 교사 간담회 및 협약식을 시작으로 2014년 친친와이파이즌 프로그램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매주 화요일 5교시에 8명의 강사가 '나라는 친구, 너라는 배려, 우리라는 공감'이란 주제로 구성된 공감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감프로그램 외에도 교사 워크숍과 학교 공간 바꾸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소중한 한 표가 청소년의 희망입니다.' 공명선거운동 특강

전주Y 청소년부에서는 5월 3일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중한 한 표가 청소년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공명선거운동 특강을 진행했다. 김선희(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모시고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5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대학로 주변을 찾아가 대학생 투표참여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요리치료와 함께하는 오감만족프로젝트



전주Y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 26일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파인애플 우주선 만들기' 요리치료를 진행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요리라는 매체를 이용해 오감을 자극하고 발달 단계에 필요한 창의적인 두뇌활동, 탐구력, 관찰력, 표현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익산시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식

4월 16일 익산Y는 익산시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시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전북에너지대책협의회

4월 25일 익산YWCA, 익산YMCA, 한국전력공사, 녹색연대, 전북의제2추진협의회가 모인 가운데 전북에너지대책협의회가 진행됐다. '에너지의 날' 행사 협의와 5월 31일에 진행될 익산Y-틴 탈핵강의와 캠페인 후원 및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2014 목포YWCA 67주년 창립기념예배 · 장학금 수여식



4월 26일 목포Y 창립 67주년을 맞아 흥석기 목사(목포상리교회)의 '허물을 덮어주자'라는 말씀,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기념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애자 회장을 비롯한 이사, 장학생, 직원 등 90명이 참석하여 목포Y 67년 생일을 축하했다. 또한 이날 2014년 장학생 15명(대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목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포Y가 되기를 기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규자 교육

목포Y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단에서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영암군 사회복지과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7명이 수

료했다. 다문화가정 자국민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서부지역 Y아카데미 개최

4월 17일 순천Y 사회적기업(주)해피락에서 서부지역 Y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서부지역 9개 회원Y(광주, 광양, 목포, 남원, 여수, 서귀포, 익산, 전주, 순천)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예배(임화식 순천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시작으로 2014-2015 한국YWCA 운동정책에 대한 이해, 서부지역YWCA 중점운동 '탈핵'의 이해와 교육 및 탈핵운동 실천 워크숍을 연합회 명진숙 국장과 시민 방사능감시센터 김해정 운영위원장의 강연회로 진행했다. 탈핵의 필요성과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회원Y의 실천다짐을 했다.

2014 회원증모교육

4월 25일 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회원증모 1차 회원교육이 실시됐다. 퀵팅기법으로 강아지 열쇠주머니를 만들어보는 교육에는 김순정('수작' 공방 대표) 강사와 총 15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다양한 퀵팅기법으로 열쇠주머니를 만들면서 회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수YWCA

김상희 간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



5월 1일 열린 월례기도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로 이사·직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학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실종자들이 속히 발견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모든 구조의 손길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촛불 기도와 함께 희생자 가족을 위한 헌금순서를 가졌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세월호 희생자 추모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4월 29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노란리본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500여 명의 시민들이 리본달기에 동참하여 슬픔을 나누고 추모의 뜻을 함께 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2014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4월 19일 서귀포Y회관에서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개강식을 50여 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퇴직(예정)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고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설계기초과정과 부동산경매컨설팅과정인 역량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퇴직준비와 부동산경매컨설팅을 통한 역량과정까지 진행하여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4월 29일 오전 12시부터 오후2시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중앙광장에서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탈핵 피켓시위, 리플렛 나누기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탈핵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연대도 함께했으며, 불의날 캠페인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안한 이 때에, 불의날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탈핵을 외치길 기대해본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4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한이탈주민과 평화지기 40여 명이 안동 천해농장으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대구Y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나들이를 떠난다. 올해는 안동에서 새콤달콤 딸기따기 체험, 친환경 야채와 함께 먹는 고기파티, 온드래피움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대구Y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부산YWCA

하경량 간사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시장후보자 초청 시민포럼 및 공동협약식

5월 13일 부산YWCA 주관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지속가능한공동체포럼 주최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시장후보자 초청 시민포럼 및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시장후보자와 부산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포럼(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시민제안,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정리), 시장후보자 공동협약식

의 순서로 진행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평생회원의 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산Y를 사랑하는 평생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평생회원의 날'을 가졌다. 68주년을 맞이하는 부산Y가 생명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평생회원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으며 평생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행복텃밭가꾸기 발대식·로컬푸드 교육



4월 26일 오전 11시 행복텃밭가꾸기 발대식과 로컬푸드 교육을 진행했다. 가족들이 함께 배란다 상자텃밭을 가꾸고, 행복텃밭 체험활동과 제철요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행복텃밭 가꾸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활동으로 진행된다. 5월은 울산 북구의 로컬푸드 생산농가에서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체험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친친와이파이존 학교 간담회

4월 29일 포항 송도중학교에서 친친와이파이존 협약식 및 학교장·교사 간담회,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친친와이파이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 관계 회복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장, 교사,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친친 공감프로그램

5월 12일 1교시 포항 송도중학교 전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친친 공감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교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주며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공감과 소통을 구성 요소로 한 일상생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 4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제YWCA

김의향 팀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한마음 음악회·부활절 특별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장 정해완 지휘자 유철근)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9일 베데스다의 집에 방문해 장애우들과 한마음 음악회를 가졌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악기연주와 노래를 통해 장애의 벽을 허물며 소통하고 다과를 나눴다. 또한 4월 20일 장승포지역 기독교연합회 부활절연합예배(옥포제일교회)에 참석해 특별연주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연주와 기도시간을 가졌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2014년 다래교실 개강

5월 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래교실이 개강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습지도와 독서지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꿈 찾기 체험학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및 학습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아정체감을 재정립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리더로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날까지

김해Y는 다래교실과 함께 할 것이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수납전문가 2급 양성과정교육**

5월 7일 2층 강당에서 수납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총 5회로 격주로 수요일마다 실시하는 교육으로 주거 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정리수납 기술과 방법을 배우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납정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결연식**



4월 25일 사천시사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결혼이민여성,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여성봉사자들과 기정착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50명의 멘토와 초기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50명의 멘티가 일대일 결연을 맺었다. 멘토들은 일 년 동안 정서적 지원은 물론 각종 정보제공, 생활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 멘티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결혼이민여성 '네일아트 전문가 과정' 교육**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네일아트 전문가 과정' 교육이 5월 1일부터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6월 12일까지 총 120

시간이며, 케어마사지, 팁&랩 이론, 도트, 그라데이션 등 기술 및 현장실무교육 등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에 집중된 기존 교육에서 더 나아가 전문직종 교육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돕는다.

**진주YWCA**

류지혜 간사

**특수학급 장애청소년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5월 17일 특수아동 토요프로그램으로 경남과학교육원에 견학 체험을 다녀왔다. 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격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번 회기에는 15명의 아동과 1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화석전시관, 천체 투영관, 발명교실등을 견학하며 보고, 만지고, 느끼는 직접 체험을 통하여 다채롭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 주제 단편영화 '우아한가족' 제작**

진주Y는 경남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다문화를 주제로 한 시나리오를 지역 단편영화 제작 감독과 함께 공모 신청하여 당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9일 배우 오디션을 시작으로 4개월간의 제작 일정에 들어간다. 당선된 시나리오 '우아한 가족'은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진주의 시골마을에서 살아가며 겪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이주생활의 어려움 등을 담고 있다.

**창원YWCA**

박소라 간사

**실무자 및 부속시설 전직원 탈핵교육**

2014년 한국YWCA 6대정책 중 '탈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무자 및 부설기관인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어린이집 직원을 대상으로 4월 29일 창원Y 세미나실에서 서토덕(환경자치연구소) 강사가 '원자력 발전소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탈핵교육을 진행했다. 원자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저렴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것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2014년 창원Y는 탈핵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탈핵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국YWCA연합회**

**여성이 살리는 세상\_잡지 「여·세」 창간해**

-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잡지로 태어나
- 이 시대 흔들리는 가족공동체와 여성의 몸, 포스트후쿠시마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다뤄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4월 20일 창립 92주년을 맞아 한국YWCA 정론지「여·세」창간호를 발행했다. 「여·세」는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여성들의 세력',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 등의 의미로 한국YWCA의 목적 즉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기독교여성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찾는 한국YWCA 정론지이다.

이번 창간호는 2013년 전국의 회원Y와 함께 생명포럼을 열며, 생명위기 시대의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YWCA 내외부 전문가들의 글로 담아냈다.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특집대담, 가족공동체, 여성의 몸, 포스트후쿠시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에 대해 다루는 '생명위기와 이 시대 우리의 삶' 특집기획, YWCA운동의 과거와 현재, 실천 현장등의 칼럼을 만날 수 있다.

「여·세」는 전국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이외에 온라인서점(알라딘, 예스24, 11번가) 등 총 56개 서점에서 4월 25일(금)부터 판매 예정이며, 정가는 1만2천원이다. 다음 호는 11월에 발행될 예정으로 우리 사회 돌봄의 위기를 특집으로 다루게 된다.

구입문의 : ywca.or.kr 홈페이지 팝업창  
Tel : 02-774-0230 정론지 여·세팀

